

전남대총장, 화순병원장 동기 추천 물의

지병문 총장, 인사권자인 전남대병원장에 요구... 화순병원 교수들 “철회하라”

수의대·생활대 학장 지명도 교수회 동의 못얻어

전남대가 지병문 총장 취임이후 원칙과 관행을 무시한 인사를 되풀이하면서 ‘난기류’에 휩싸였다.

수의대와 생활대 학장 등 대학 보직 인사가 총장 취임 3개월에 이르도록 이뤄지지 않아 파열음이 새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지 총장이 화순전남대병원장에 자신의 고교 동기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성원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는 지 총장이 지난 총장 선거에서 불법선거혐의로 법원에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병택 교수를 1월초 대학원장에 선임해 ‘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킨 뒤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화순병원장은 병원 정장에 따라 본인의 전남대병원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돼 있다.

그러나 지병문 총장은 지난 19일께 전남대병원장의 신임 화순병원장 인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 고교 동기인 조모 교수를 임명토록 요구했다.

지금까지 화순병원장은 병원 개원 및 발전에 기여했거나 화순병원 소속이었다. 특히 주로 50대 중반의 개혁적인 인사가 관례적으로 임명돼 왔다.

하지만 지 총장이 지목한 조 교수는 화순병원과 별다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전남대병원장보다 선

배여서 지휘 체계상 혼란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 총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화순병원 교수들은 지난주 총장 인사안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화순병원 대표단은 총장을 방문해 “인사 원칙을 존중하고, 화순병원에 적합한 교수를 원장에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 총장은 취임직후인 1월8일 ‘단과대학장 및 전문대학원장 선출 지침’을 만들어 공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총장이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여론을 수렴해 후보 1명을 지명한 후,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다른 후보를 지명한 후,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재차 부결되는 경우, 총장직권으로 임명하는 등의 3단계 선출 시스템이다.

이 같은 선출지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 총장은 지난 1월16일과 28일 각각 수의대와 생활대 학장 후보를 지명했으나 해당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후 2개월이 지난지나 후보가 재추천되지 않아 공식인 상태다.

해당 대학의 한 교수는 “학장직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서 총장이 자신의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재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관계자는 “총장이 합리적이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Energy 비타민’ 주제 교육 광주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순정)는 지난 23일 광주 보건대학교에서 어린이집 교사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필수 Energy 비타민’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폭발 용접작업, 대림측 지시 있었다”

경찰, 사일로 맨홀 재작업 지시 진술 확보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용접 작업 과정에서 사실상 대림산업 측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 현장 근로자 및 대림산업 측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 사고 당일인 지난 14일 대림산업 측 감독·감시 직원들이 저장탑(사일로·silo) 맨홀 설치 작업 중 이미 부착된 맨홀을 떼어낸 뒤 재작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착했던 맨홀을 떼어낸 뒤 재부착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

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맨홀을 저장탑에 붙이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림산업 직원들이 한 차례 용접 작업을 통해 저장탑에 부착했던 맨홀을 떼어내 재부착할 것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두 차례나 이뤄진 용접 작업을 대림산업 측이 불렀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경찰은 또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맨홀설치 공사가 이를 앞당겨 14일에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대림산업 협력 업체인 유한기술 측의 건의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14일 계획된 2개의 저장탑 작업이 이날 오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자, 유한기술 측이 대림산업 측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작업만 이뤄져 하루 일당의 절반만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뤄진 건으로 보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산산이 부서진 ‘코리안 드림’

“열심히 돈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 아파트도 사고, 아들 장기도 보내주기로 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난 22일 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조선숙 허모(51)씨 부인 최모(49)씨는 말을 잊지 못했다. 허씨는 전남 광주시 서구 생촌동 한

2011년부터 페인트 도장공으로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경기 침체로 일감 찾기가 쉽지 않아 거주지인 인천을 떠나 전국 곳곳을 돌아 다녔다는 게 가족들 말이다.

허씨는 사고 당일에도 페인트 작업을 위해 광주를 찾았고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20평짜리 전셋집을 마련했다”면서 “남편 허씨는 조금만 더 일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며 흐느꼈다.

이방인인 탓에 장례 절차도 까다롭다. 당장, 사망진단서, 의과 인신분증과 사망사실에 대한 의공상부의 ‘인증’ 서류가 있어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 허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한 채 서울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고 있는 형편이다.

허씨의 처제 최모(여·60)씨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방인일 뿐”이라며 통곡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07년 아들과 입국한 조선숙

아파트 외벽 칠 작업중 추락사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작업 중 떨어져 숨졌다.

〈광주일보 3월22일자 6면〉

허씨는 아들(26)과 함께 지난 2007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다. 부인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모델에서 자며 하루 14시간씩 일했고 다른 가족들도 “빨리 돈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배관공, 일용직 근로자, 공장, 택배 등 일을 했다고 한다.

허씨는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2011년부터 페인트 도장공으로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경기 침체로 일감 찾기가 쉽지 않아 거주지인 인천을 떠나 전국 곳곳을 돌아 다녔다는 게 가족들 말이다.

허씨는 사고 당일에도 페인트 작업을 위해 광주를 찾았고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20평짜리 전셋집을 마련했다”면서 “남편 허씨는 조금만 더 일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며 흐느꼈다.

이방인인 탓에 장례 절차도 까다롭다. 당장, 사망진단서, 의과 인신분증과 사망사실에 대한 의공상부의 ‘인증’ 서류가 있어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 허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한 채 서울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고 있는 형편이다.

허씨의 처제 최모(여·60)씨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방인일 뿐”이라며 통곡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모집·수송책 동원 수천만원대 도박

나주경찰, 7명 영장

인적이 드문 나주의 한 산장 식당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정보를 주고받으며 수천 만원 대의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24일 도박총책 김모(50)씨 등 7명에 대해 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도박 가담자 이모(53)씨 등 19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1일 밤 8시50분께 나주시 문평읍 오거리 한 식당에서 한 판당 수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도리 짓고 팽’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맨홀설치 공사가 이를 앞당겨 14일에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대림산업 협력 업체인 유한기술 측의 건의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14일 계획된 2개의 저장탑 작업이 이날 오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자, 유한기술 측이 대림산업 측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작업만 이뤄져 하루 일당의 절반만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뤄진 건으로 보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문방·도박총책·부두목·자금조달·모집·수송 등으로 역할을 분담, 무전기를 이용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대다수는 50~60대 주부·무직자들이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산장을 이용해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주의 한 식당에서 수천만원대의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현금 2200만 원과 무전기 4대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jung@

해킹 고객정보 1억건 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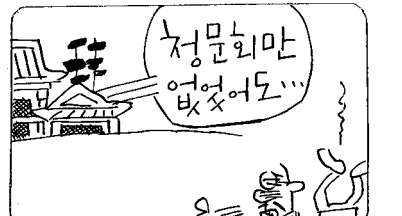
경찰이 저축은행 등을 해킹해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낸 남성을 구속했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디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부 서민 금융기관을 해킹,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 1억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중국 단둥 지역에서 활동 중인 북한 해커를 고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북한 해커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나원침 (8780) 김종두



박시후 진술 '거짓' 판명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연예인지방방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탈린트 박시후(36)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와 피해여성 A씨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 대해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왜 내 여자 건드려” 선배에 폭력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대 남성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0)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에 사는 선배 김모(53)씨의 집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밤 지인 안모(여·49)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김씨의 집에서 다시 만나 술을 마셨는데, 경찰에서 “안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김씨의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 (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탁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